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교양교육 만족도 및 교육요구도 분석을 통한 교양교육 운영 방안 연구

김경미 · 곽아람*
(건국대학교)

1. 서론
2. 선행 연구 검토
 - 2.1. 교양교육 인식 및 수강에 따른 만족도 조사
 - 2.2. 자유전공학부 운영과 전공 탐색 기능 기반 교양교육 만족도 연구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 3.2. 측정도구
 - 3.3. 분석방법
4. 연구결과
 - 4.1. 교양교과목 수강 태도 및 교양교육과정 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
 - 4.2. 교양교과목 영역별 교육요구도 분석
 - 4.3. 자유전공학부와 비교집단(일반학과)의 교육요구도 집단 간 비교
5. 결론

* 제1저자: 김경미, 교신저자: 곽아람

Ⅰ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전공학부(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도 포함) 학생들과 일반학과 학생들의 교양교육 만족도 조사와 교육요구도를 비교 분석하여,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위한 교양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교양교과목 수강 태도와 교육과정 만족도 분석 결과, 자유전공학부와 일반학과 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측정한 전반적인 수강태도와 교육과정 만족도 수준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융복합 영역에서 가장 높은 교육요구도를 보여, 전공 탐색을 위한 다양한 학문 영역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질 높은 전공 선택을 위해 교양교육과 학사지도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심화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위해 다양한 융복합 교양교과목의 개발과 개설이 필요하다. 둘째,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전공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학사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위한 교양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교양교육, 만족도, 자유전공학부, 학사지도, IPA

1. 서론

현재 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생이라면 모두가 전공을 막론하고 ‘교양’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이수 체계가 꾸려져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전공 과정을 운영하여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에서 ‘교양교육’은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도 치우쳐지지 않고 보편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교양교육’을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으로 보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인적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형성”하고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실현”하도록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22)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의 시각에서 생각한다면 교양교육은 특정한 목적의 전문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적·개방적이고 능동적·주체적으로 폭넓은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보경 외 2010).

그런데 최근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공 간 벽을 허무는 ‘전공자유선택제’를 권장하였고, 정책에 따라 대학은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게 되었다.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들이 입학 초기 특정 학과에 귀속되지 않은 채 여러 학문 영역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전공 선택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학사구조이다(민윤경 2022). 따라서 이러한 학사구조 내에서 교양교육은 그동안 주어졌던 ‘보편적 교육’ 혹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교육’에 머무르기보다, 기초학문의 주요 내용을 경험하게 하여 학생들이 전공 선택의 판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양교육은 학습자의 전공이 명확하지 않으며, 다양한 적성 혹은 여러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 넓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끊임없이 다양한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양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대학은 학생들에게 교양교과목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편 시기에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학습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교양교육 제도를 수정하고 있다. 이는 A대학에서도 적용되어 2년에 1번씩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교양교육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가 매년 진행될 시 중복 응답자가 다수 발생하여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조사는 격년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A대학은 4년마다 교양교육 과정 정기 개편을 진행할 때 2번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교양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5년에도 A대학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교양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유전공학부가 2025학년부터 도입되어 신입생을 처음 받은 만큼, 이번 교양교육 만족도는 그들의 의견이 담긴 첫 조사로 볼 수 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간 다수의 교양교과목을 수강하였으므로 이들이 응답한 교양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는 기존에 행해진 조사와는 다른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므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수강 태도부터 교양교육과정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일반 학생들(전공을 정하고 입학한 학생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인 만큼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전체 응답자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할 수는 없겠지만, 전공 교과목을 병행하여 수강하는 학생 중 표본집단을 최대한 동일하게 추출하여 응답을 비교하여 본다면 분명 자유전공학부 학생들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유전공학부(단과대학 자유전공도 포함)와 일반학과 학생들의 교양교육 만족도 조사를 비교 분석하여 자유전공학부를 위한 교양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기존 연구들이 자유전공학부의 운영 현황이나 전공 탐색 경험을 질적·단일 집단 방식으로 접근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동일 대학 내 자유전공학부 학생과 일반학과 학생을 동일한 학년과 유사한 계열 구성의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여 교양교육 만족도와 교육요구도를 실증적으로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유전공학부와 일반학과 학생 간 교양교과목 수강 태도와 교양교육과정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교양교과목 영역별 교육요구도와 두 집단의 교육요구도 우선순위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전공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교양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2.1. 교양교육 인식 및 수강에 따른 만족도 조사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보통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앞으로 나아갈 교양교육의 방향을 연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연구가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교양교육 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습자의 발달 도움 여부와 교과목의 운영 방식, 교육 지원 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으면 만족도가 상

승한다는 연구(문영빛 2023)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양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유기웅·신원석 2012). 세부적으로는 첨단 시설 구축 및 취업·진로를 위한 교양교과목의 개설과 별도 영역 설정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밝힌 연구도 있다(박주연 2022).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원과 졸업생까지도 교양교육 만족도 조사의 대상으로 삼은 연구에서는 세 집단 모두 고전적인 내용의 교과와 시대상을 반영한 교과목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저학년 위주의 집중 수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박주호·유기웅 2014). 이밖에 교수자들에게도 교양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낮은 운영 만족도의 원인을 불안정한 교양교육 이수 체계로 꼽았는데, 국책사업에 따른 강압적인 변화인 만큼 해결책으로 전공 과정과 함께 균형 있는 교육과정 설계를 제시하였다(허혜연·김미정 2023).

만족도 조사에 따른 교양교과목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도 제기되었다. 김지혜 외(2014)는 실용적인 목적과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 및 분석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교양교과목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차적 사고능력·행정 지원부터 교양교육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인식이 낮게 나타난 조사에서는 수강인원을 줄이고 다양한 교과목을 신설하며 학사지도 전반을 강화해야 함을 밝혀내었다(백평구 2012). 직접적으로 수강인원 제한 기준 설정의 근거를 제시하며 수업유형과 분반에 따라 강의식 수업은 42명, 외국어 및 실습 강의는 27명 이하를 적당하다고 인식한다는 연구(김남희·정미애 2018)는 교양교육과정 운영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권현용은 신입생의 학교 적응에 교양수업의 기대와 만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히면서 유연한 사고와 진로탐색을 위해서 교양교과목의 내용과 교수방법에 대한 고민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권현용 2019).

이러한 만족도 조사는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한 선순환적 시스템 구축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정경미 외 2017). 따라서 대학은 학습자들부터 교수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의 인식을 반영하여 양질의 교양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2. 자유전공학부 운영과 전공 탐색 기능 기반 교양교육 만족도 연구

자유전공학부에서 교양교육은 일반학과 소속 학생들과 달리 ‘전공 탐색 지원 기능’이 중심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 모델을 준거로 설계된 국내 자유전공 제도는 학생들이 입학 초기 1년간 특정 학과에 귀속되지 않은 채 다양한 학문 영역을 자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예 공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분명하다. 그러나 민윤경(2022)의 비교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가 자유교양교육 중심의 학부 교육에 충실한 것과 달리, 한국의 자유전공학부는 추가적으로 실용적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포함하여 동시에 달성하려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자유전공학부 만족도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채민정·서희정(2025)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입학 단계에서 다양한 학문 영역을 탐색하며 진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학에 진입한다. 그러나 실제 교육과정에서는 수강 가능한 교과목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일부 계열에서는 전공 적합성 기준으로 인해 수강이 제한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또한 특정 학과에 소속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의 지도교수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담 교수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고된다. 이는 제도적으로 마련된 지원 체계가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대학교는 이에 대응하여 자유전공학부 신설과 함께 기존의 전공에서 운영하는 ‘지정교양’ 체계를 폐지하고 ‘기반교양’이라는 새로운 교과 영역을 도입하였다. 기반교양은 전공 탐색, 진로 탐색, 취·창업 지원 기능을 분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구성한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 또한 인문사회계열 학문 간 경계를 넘는 융합 강좌를 전임 교원이 직접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전공 선택 이전 단계에서 해당

학과의 교육 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전공 선택 이전 단계에서 교수와 학생 간 상호 접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김경미 외 2025).

선행연구들은 자유전공학부의 운영 현황, 전공 탐색 경험, 학사지도 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실제로 경험하는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타 전공 학생과 비교 분석하는 연구는 미흡하다. 전공 선택 전까지 교양교육에 더 많이 노출되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교양교육 만족도와 타 전공 학생 간의 차이를 검토하는 것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양교육과정 설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의의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A대학 자유전공학부(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 포함)와 일반학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수강 태도, 만족도 및 교육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해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 총 4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1,398명이었으나, 학번 오기입 및 중복 응답자를 제외한 유효 응답 1,178명을 분석 데이터로 확보하였다.

자유전공학부가 2025학년도에 신설된 점과 재학 기간에 따른 교양교육 경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 대상은 1학년으로 한정하였다. 이 가운데 자유전공학부 소속 1학년 응답자 114명 전원을 자유전공학부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비교집단은 유효 응답자 중 일반학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전공학부 집단과의 성별 및 소속 단과대학 구성 차이를 줄이기 위해 층을 구분한 후, 각 층에서 무작위로 114명을 추출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자는 자유전공학부 학생 114명과 일반학과 학생 114명으로 구성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94명(41.23%), 여성 134명(58.77%)

이었으며, 두 집단 모두 1학년으로 한정하였다. 일반학과 비교집단은 특정 단과대학에 응답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소속 단과대학의 분포를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분		세부사항	응답자(명)	백분율(%)
성별		남	94	41.23
		여	134	58.77
학년		1학년	228	100.00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114	50.00
	일반학과	건축대학	3	1.32
		경영대학	7	3.07
		공과대학	30	13.16
		문과대학	13	5.70
		부동산과학원	4	1.75
		사범대학	8	3.51
		사회과학대학	21	9.21
		KU융합과학기술원	2	0.88
		상허생명과학대학	2	0.88
		생명과학대학	12	5.26
		수의과대학	1	0.44
		예술디자인대학	2	0.88
		융합과학기술원	1	0.44
		이과대학	6	2.63
		국제대학	2	0.88
전체			228	100.00

이러한 표본 추출을 통해 두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자유전공학부 여부에 따른 교양교육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교양교과목 수강태도(5문항)와 교양교육과정 만족도(7문항)를 측정하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 검증에 활용하였다. 둘째, 교양교과목 11개 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를 각각 측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교육요구도 및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 절에서 기술한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교양교과목 수강 태도와 교양교육과정 만족도를 대상으로 Cronbach's α 를 산출한 결과, 교양교과목 수강태도는 .652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며, 교양교육과정 만족도는 .919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양교과목 수강태도에 관한 결과는 해당 측정도구의 신뢰도 수준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2〉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구분	문항내용(문항 수)	척도	신뢰도
교양교과목 수강 태도	수업 참여의 적극성, 상호작용, 집중도 등(5문항)	Likert 5점	.652
교양교육과정 만족도	사회 및 학습자 요구 반영 여부, 교과목 구성의 적절성 및 체계성, 전반적인 만족도(7문항)	Likert 5점	.919

11개 영역의 분류 체계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배상호 2012: 38)의 기준을 준용하되, A대학의 인재상과 실제 개설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총 11개 영역으로 구조화하였다.¹⁾ 기초 학문 소양을 파악하기 위한 영역으로는 인문철학 영역, 사회과학 영역, 자연과학 영역

1) 각 영역의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인문철학(논리·도덕·윤리·역사·문학 등), 사회과학(사회·심리학·경제·법률·행정 등), 자연과학(기초수학·기초물리·기초화학·공학 등), 문화예술(음악·공연·영화·미술·디자인 등), 융복합(학제 간 통합 교과), 의사소통(글쓰기·말하기·토론 등), 외국어 및 국제화(영어 및 제2외국어·다문화 이해 등), 정보기술활용(인공지능·데이터 분석·코딩 등), 사회봉사(봉사활동·사회공헌 관련 이론 및 실습),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취·창업 준비·직업윤리·자격증 대비 등), 종교 및 신학(종교의 이해·신학개론·영성 훈련 등).

을 설정하였다. 예술적 감수성과 융합적 사고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영역과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영역을 별도로 구분하였다. 또한, 대학 교육의 핵심 도구 역량을 파악하고자 글쓰기와 말하기 중심의 의사소통 영역, 외국어 및 국제화 영역, 디지털 리터러시를 다루는 정보기술활용 영역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학생의 생애 설계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봉사 영역,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 영역, 종교 및 신학 영역을 독립적 유형으로 설정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

중요도와 실행도 평가는 각 영역의 교과목을 실제로 이수한 경험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 연구대상이 1학년으로 한정된 특성상 11개 전 영역에 걸쳐 수강 이력을 갖춘 학생은 드물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사는 실제 수강 경험보다는 각 영역에 대한 학생의 전반적 인식과 교육적 필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실행도 수치는 해당 영역의 교육 제공 수준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 판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는 SPSS 29.0과 Microsoft Excel을 활용하였다. 분석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자유전공학부와 일반학과 간 교양 교과목 수강 태도 및 교양교육과정 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교양교과목 11개 분류 영역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Borich 교육요구도 분석,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집단 간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으며, 영역별 중요도와 실행도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만 t검정은 두 지표 간 평균 차이를 파악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영역의 우선순위나 차이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조대연 2009).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Borich(1980)의 교육요구도 공식을 적용하여 영역별 개선 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 이는 중요도 평균과 실행도 평균의 차이에 중요도 평균을 가중하여 요구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값

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교육적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해석된다. 또한 IPA 분석을 병행하여 중요도와 실행도의 상대적 위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Martilla & James 1977). IPA는 두 변수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각 영역을 네 개의 사분면으로 구분하여 해석한다. 1사분면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은 영역으로 유지가 적절하며, 2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도가 낮아 우선 개선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3사분면은 두 지표 모두 낮아 장기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며, 4사분면은 실행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자원 배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Borich 교육요구도와 IPA 분석 결과를 함께 검토하여 두 분석에서 모두 개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영역을 우선 개선 영역으로 판단하였다. 한 분석에서만 개선 필요성이 나타난 영역은 중요도와 실행도 간 차이 및 해당 영역의 상대적 위치를 참고하여 보완적으로 해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교양교과목 수강 태도 및 교양교육과정 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

자유전공학부와 일반학과 집단 간 교양교과목 수강 태도 및 교양교육과정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수강 태도의 경우, 자유전공학부($M=3.71$, $SD=.69$)가 비교집단($M=3.64$, $SD=.64$)에 비해 평균이 소폭 높게 나타났으나, 등분산 검정 결과($F=1.205$, $p=.274$)를 토대로 실시한 t검정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t=.777$, $df=226$, $p=.438$). 교양교육과정 만족도 또한 자유전공학부($M=3.75$, $SD=.66$)와 비교집단($M=3.70$, $SD=.70$) 간 등분산이 확인되었으며($F=.076$, $p=.783$), t검정에서도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501$, $df=226$, $p=.617$). 두 집단 간 차이의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교양교과목 수강 태도는 Cohen's $d=.11$, 교양교육과정 만족도는 $d=.07$ 로 나타나 두 변수 모두 집단 간 차이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자유전공학부와 일반학과 학생의 교양교과목
수강 태도 및 교양교육과정 만족도 차이 검증

변수	집단	N	M	SD	t(df)	p	Cohen's d
교양교과목 수강 태도	자유전공	114	3.71	0.69	0.777 (226)	.438	.11
	비교집단	114	3.64	0.64			
교양교육과정 만족도	자유전공	114	3.75	0.66	0.501 (226)	.617	.07
	비교집단	114	3.70	0.70			

p<.05*, p<.01**, p<.001***

4.2. 교양교과목 영역별 교육요구도 분석

자유전공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교양교과목 11개 분류 영역의 중요도와 실행도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Borich(1980) 공식에 따라 교육요구도 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자유전공학부 교양교과목 영역별 교육요구도 분석 결과

유형	자유전공학부						
	중요도		실행도		t	교육 요구도	순위
	M	SD	M	SD			
인문철학 영역	3.69	0.913	3.64	0.821	0.498	0.194	9
사회과학 영역	3.89	0.919	3.62	0.866	2.542*	1.023	3
자연과학 영역	4.04	0.835	3.84	0.878	2.263*	0.816	5
문화예술 영역	3.51	0.980	3.30	0.949	1.748	0.739	6
융복합 영역	3.84	0.898	3.39	0.879	4.416***	1.719	1
의사소통 영역	3.82	0.955	3.67	0.848	1.438	0.569	7
외국어 및 국제화 영역	3.75	0.891	3.53	0.885	2.187*	0.821	4
정보기술활용 영역	4.01	0.982	3.60	0.909	3.905***	1.653	2
사회봉사 영역	3.09	1.069	3.72	0.836	-6.373***	-1.950	10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 영역	3.66	0.985	3.55	0.788	0.954	0.385	8
종교 및 신학 영역	2.45	1.176	3.40	0.849	-8.353***	-2.340	11

p<.05*, p<.01**, p<.001***

t검정 결과 11개 영역 가운데 7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중요도가 실행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영역은 융복합($t=4.416$, $p<.001$), 정보기술활용($t=3.905$, $p<.001$), 사회과학($t=2.542$, $p<.05$), 자연과학($t=2.263$, $p<.05$), 외국어 및 국제화($t=2.187$, $p<.05$)였다. 반대로 사회봉사($t=-6.373$, $p<.001$)와 종교 및 신학($t=-8.353$, $p<.001$)은 실행도가 중요도를 유의하게 초과하여, 해당 영역의 교육 제공 수준이 학생 기대에 비해 과잉 상태임을 나타냈다. 인문철학, 문화예술, 의사소통,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 영역에서는 두 지표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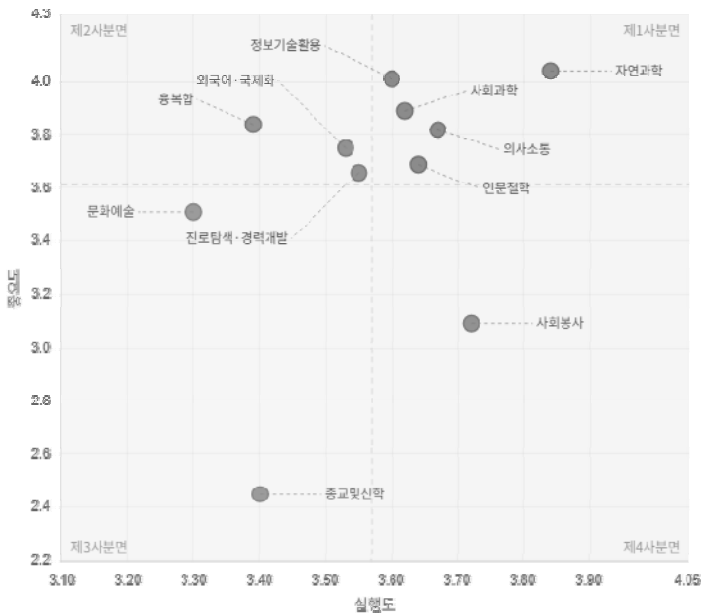
Borich 교육요구도를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는 융복합 영역(1.719)이 1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기술활용 영역(1.653)이 2위, 사회과학 영역(1.023)이 3위 순으로 도출되었으며,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 영역(0.385)은 8위로 나타났다.

수강 태도와 전반적 만족도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Borich 분석 결과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융복합 영역에서 가장 높은 교육요구도를 보였다. 이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여러 학문 영역을 함께 접할 수 있는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전공 탐색 과정에서 다양한 학문을 경험할 수 있는 교과목 운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IPA 분석 결과를 사분면별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1사분면(지속 유지)에는 인문철학 영역, 사회과학 영역, 의사소통 영역, 자연과학 영역, 정보기술활용 영역이 배치되었다. 이 영역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전체 평균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교육 운영이 학습자의 인식 수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사분면(중점 개선)에는 외국어 및 국제화 영역,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 영역, 융복합 영역이 포함된다. 해당 영역은 학습자의 중요도 인식은 높으나 실행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현재 교육 제공 수준이 학습자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사분면(점진적 개선)에는 문화예술 영역, 종교 및 신학 영역이 속하였다. 이는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는 영역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4사분면(과잉제공)에는 사회봉사 영역이 포함

되었다. 이 영역은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자의 요구에 비해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융복합 영역은 중요도와 실행도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orich 교육요구도 1위와 IPA 2사분면에 모두 해당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할 영역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활용 영역은 Borich 교육요구도 2위로 나타났으나 IPA 분석에서는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은 1사분면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운영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반면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 영역은 IPA 분석에서 2사분면에 위치하였으나 Borich 교육요구도 순위가 8위였고 중요도와 실행도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최우선 개선 영역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주: <그림 1>은 SPSS 29.0을 통해 산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I 도구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음. AI 도구는 통계값 산출이나 결과 해석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연구자의 검토를 통해 수정한 후 본 논문에 수록함.

<그림 1>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교양교과목 영역별 IPA 분석결과

4.3. 자유전공학부와 비교집단(일반학과)의 교육요구도 집단 간 비교

두 집단의 Borich 교육요구도 우선순위를 영역별로 대조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집단 간 인식 차이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 영역의 경우, 비교집단(일반학과)에서는 1위(1.640)를 기록한 데 반해 자유전공학부에서는 8위(0.385)에 머물렀다. 전공이 확정된 일반학과 학생들이 취업 및 진로 준비에 대한 교육적 필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전공 탐색 단계에 있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는 해당 영역의 요구가 아직 높게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자유전공학부와 비교집단(일반학과) 교양교과목 영역별 교육요구도 분석 결과

유형	자유전공학부		비교집단(일반학과)	
	교육요구도	순위	교육요구도	순위
인문철학 영역	0.194	9	0.827	8
사회과학 영역	1.023	3	1.462	3
자연과학 영역	0.816	5	1.149	6
문화예술 영역	0.739	6	1.271	5
융복합 영역	1.719	1	1.439	4
의사소통 영역	0.569	7	0.740	9
외국어 및 국제화 영역	0.821	4	1.149	6
정보기술활용 영역	1.653	2	1.470	2
사회봉사 영역	-1.950	10	-1.583	10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 영역	0.385	8	1.640	1
종교 및 신학 영역	-2.340	11	-1.926	11

융복합 영역에서는 자유전공학부 1위(1.719), 비교집단(일반학과) 4위(1.439)로 대조적인 양상이 나타났으며, 전공 경계 없이 다양한 학문을 탐색하는 자유전공학부의 학습 환경이 융합 교육에 대한 높은 교육요구도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기술활용 영역은 자유전공학부 2위(1.653), 비교집단(일반학과) 2위(1.470)로 두 집단 모두 상위권을 유지하여, 두 집단 모두에서 높은 교육요구도를 보였다. 사회봉사와 종교 및 신

학 영역은 두 집단 모두 요구도가 음수(-)로 산출되어, 현재의 교육 제공 수준이 학생들의 실제 요구를 초과하는 상태임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교육요구도 우선순위를 종합하면, 정보기술활용 영역은 두 집단에서 모두 2위, 사회과학 영역은 모두 3위로 나타나 공통적으로 높은 교육요구도를 보였다. 반면 융복합 영역은 자유전공학부에서 1위, 일반학과에서 4위로 나타났으며,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 영역은 자유전공학부에서 8위, 일반학과에서 1위로 나타나 집단 간 우선순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의 전반적인 교양교육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양교육 영역별 교육요구도의 우선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전공 선택 이전에 여러 학문 분야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융복합 영역의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융복합 교과목의 운영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융복합 교과목이 개별 학문 분야에 대한 탐색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한 전공탐색 교과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유전공학부와 일반학과 학생 간 교양교과목 수강 태도와 교육과정 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전반적인 수강 태도와 교육과정 만족도만으로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전공 탐색과 관련된 특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영역별 교육요구도 분석에서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융복합 영역에 가장 높은 요구를 보였으며, IPA 분석에서도 해당 영역은 중점 개선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전공 탐색과 관련된 요구는 전반적인 만족도보다는 교양교육 영역별 요구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전공선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과정의

개선뿐만 아니라 유연한 학사제도와 학사지도, 비교과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이러한 전체 운영 체계 가운데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양교육 만족도와 교육요구도에 초점을 두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양교육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전공 선택 이전에 여러 학문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한 전공탐색 교과목과 융복합 교과목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공탐색 교과목은 개별 학문의 주요 내용과 접근 방법을 경험하게 하고, 융복합 교과목은 이를 바탕으로 학문 간 연계와 응용 가능성을 살펴보게 한다. 본 연구에서 융복합 영역이 가장 높은 교육요구도를 보였다는 결과는 이러한 단계에서 융복합 교과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IPA 분석 결과, 융복합 영역은 중요도는 높으나 현재 실행도가 낮은 ‘중점 개선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Borich 교육요구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차원의 우선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의 대학은 현재 자유전공학부를 위해 총 7개의 융복합 교과목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김경미 외 2025),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교양교과목 만족도 조사에서 여전히 융복합 교과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25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선영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7개의 분야 중 융복합 영역은 6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순위에 위치하였다(김선영 2025). 이것은 교육부가 최근에 들어서서 ‘융복합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므로 기존부터 자리잡고 있던 영역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자유전공학부의 출범이 ‘융복합 인재 양성’에서 출발한 만큼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위한 융복합 교양교과목의 개발과 개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전공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학사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융복합 영역에 대한 높은 교육요구도가 확인되었으며, 선행 연구에서도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희망 전공의 지도교수와 원활하게 상담하지 못하거나 전담교수가 배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났다(채민정 · 서희정 2025). 따라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위한 학사지도는 지도교수의 전공 분야에 한정되기보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학문 분야를 탐색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사지도교수는 여러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학생의 관심 분야와 희망 전공에 따라 관련 교과목과 전공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과 교수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위한 교양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전공의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하여 집중 이수를 인증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교양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다양한 학문을 미리 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곽아람 · 김경미 2025). 따라서 교육요구도 분석에서 융복합 영역의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염두에 두었을 때, 전공 선택을 위해 여러 학문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으로 생각된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일정 부분의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는 일반학과 학생들에 비하여 교양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강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입학생들이 전공을 정하기 위해 적합한 교양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교양 교과목을 듣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공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양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개발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양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학생들의 전공 설계를 돕도록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A대학 단일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타 대학의 자유전공학부 운영에 직접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학별로 자유전공학부의 운영 방식, 교양교육 체계, 학사지도 구조가 상이한 만큼 본 연구의 결과는 A대학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A대학에서는 전공탐색을 위한 교과목이 기반교양으로 개설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전반적인 교양교육 만족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교과목의 수강 경험이나 전공 선택에 미친 영향을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A대학과 유사한 규모 및 교양교육과정 운영 구조를 가진 대학들이 자유전공학부 운영 방식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교양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곽아람·김경미(2025).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마이크로디그리 교양교육 과정 개발 사례 연구, 〈인문과학논총〉 45(1), 87-110쪽.
- 권현용(2019). 대학생들의 교양교육 만족도 및 인식, 〈교양학연구〉 6(1), 109-132쪽.
- 김경미·곽아람·최선영(2025). 효율적인 자유전공학부 운영을 위한 교양 교과목 개발사례와 교육효과 분석, 〈아시아문화연구〉 68, 27-64쪽.
- 김남희·정미애(2018). 대학 교양교육의 인식, 만족도 및 학습 성과로서의 학습역량 측정, 〈교양교육연구〉 12(6), 41-66쪽.
- 김선영(2025). 2025년 한국 교양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2025년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정기총회 및 통합 워크숍〉, 51-61쪽.
- 김지혜·박승인·이진경·황남엽(2014). 교양교육 만족도, 교육적 경험, 학습 성과에 대한 인식, 〈교양학연구〉 1(1), 177-196쪽.
- 문영빛(2023).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요인의 교양교육 만족도 영향 요인 탐색, 〈교양교육연구〉 17(6), 283-296쪽.
- 민윤경(2022). 미국과 한국 대학의 전공 자유선택 제도 비교 분석, 〈비교교육연구〉 32(1), 29-57쪽.
- 박주연(2022). 전문대학 재학생의 전공 만족도, 수업 참여 태도, 교양교육 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인문사회 21〉 13(5), 2851-2866쪽.
- 박주호·유기웅(2014).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만족도 및 교육과정 개선요구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8(2), 43-82쪽.
- 배상호(2012). 대학 기초교양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연구, 한국 교양기초교육원.
- 백평구(2012). 교양교육 만족도, 교육적 경험, 학습 성과에 대한 인식, 〈교양교육연구〉 6(1), 431-466쪽.
- 유기웅·신원석(2012). 대학 교양교육과정 만족도 및 강의 선택 관련 요인 분석, 〈교육문제연구〉 45, 31-54쪽.

- 이보경 · 김은경 · 이재성(2010). 대학생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문제연구〉 38, 1-23쪽.
- 정경미 · 양현정 · 김수연 · 김은정 · 홍혜경 · 한봉환(2017). 교양교육시스템 변화에 따른 대학생의 역량, 만족도 및 성적의 변화, 〈교양교육연구〉 11(2), 585-614쪽.
- 조대연(2009).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분석에서 우선순위결정 방법 탐색, 〈교육문제연구〉 35, 165-187쪽.
- 채민정 · 서희정(2025).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의 전공 선택 및 적응 경험 분석: 소속 학과를 결정한 A 대학 고학년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35(3), 257-283쪽.
- 허혜연 · 김미정(2023). 교양 교육과정 현황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및 만족도 분석, 〈교양교육연구〉 17(1), 197-210쪽.
-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22).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Anthropic.(2026). *Claude*(claude-sonnet-4-6, 2026.05.06.) [대형언어모델(LLM)]. <https://claude.ai>.
- Borich, G. D.(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3), pp.39-42.
- Martilla, J. A., & James, J. C.(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pp.77-79.

필자 소개

성 명 김경미
소 속 건국대학교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산학협동관 309호
전자우편 kathy4117@naver.com

성 명 곽아람
소 속 건국대학교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산학협동관 309호
전자우편 onstar8@daum.net

| Abstract

General Educ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Analysis of Satisfaction and Educational Needs of Undeclared Major Students

Kim, Kyong-mi · Kwack, Ah-ram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suggest directions for general education for students in undeclared-major programs by comparing their satisfaction with general education and educational needs with those of students enrolled in specific majors. The participants were 114 first-year students in undeclared-major programs, including college-level undeclared-major tracks, and 114 first-year students in specific majors at a four-year university in Seoul. The comparison group was selected through stratified random sampling based on the gender composition and college affiliation of the undeclared-major group. Independent-samples t-tests were conducted to compare course-taking attitudes and satisfaction with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Borich needs assessment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were also used to identify priorities across 11 areas of general education. The results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course-taking attitudes or satisfaction with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This means that no group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the levels of course-taking attitudes and curriculum satisfaction measured in this study. In contrast, students in undeclared-major programs showed the highest educational need in the interdisciplinary area, indicating a need to experience various academic fields during the process of major explor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developing and offering diverse interdisciplinary general education courses, strengthening academic advising to support major exploration, and developing general education

www.kci.go.kr

micro-degree programs for students in undeclared-major programs.

|Key words| General education, Student satisfaction, Undeclared majors, Academic advising,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투고일 2026. 06. 08 / 심사일 2026. 07. 10 / 게재확정일 2026. 07. 15
--